

Title: Obadiah part 2 Sermon Notes

Scripture: Obadiah 2-9

Date preached: September 19th 2021**Scripture: Obadiah 2-9**

2 “Behold,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shall be greatly despised.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dwell in the clefts of the rock, Whose habitation is high;
You who say in your heart, ‘Who will bring me down to the ground?’
 4 Though you ascend *as* high as the eagle, And though you set your nest among the stars,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says the LORD.

5 “If thieves had come to you, If robbers by night—
 Oh, how you will be cut off!—Would they not have stolen till they had enough?
 If grape-gatherers had come to you, Would they not have left *some* gleanings?

6 “Oh, how Esau shall be searched out! *How* his hidden treasures shall be sought after!
 7 All the men in your confederacy Shall force you to the border; The men at peace with you
 Shall deceive you *and* prevail against you. *Those who eat* your bread shall lay a trap for you.
 No one is aware of it.

8 “Will I not in that day,” says the LORD, “Even destroy the wise *men* from Edom,
 And understanding from the mountains of Esau?
 9 Then your mighty men, O Teman, shall be dismayed, To the end that everyone from the
 mountains of Esau May be cut off by slaughter.

2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네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3 네가 높은 산악 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네 교만에 속고 있다.

4 네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네 보금자리를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5 “밤에 도둑이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며 사람들이 포도를 따도 모조리 따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 둔다. 그러나 네 원수들은 너를 완전히 훔쳐 버릴 것이다.

6 에서의 후손아, 네 보물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7 너의 동맹국들이 너를 네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며 너의 우방들이 너를 속여 정복하고 너와 식사를 같이하는 네 친구들이 너를 쓰러뜨릴 함정을 팔 것이나 너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8 “그 날에 내가 에돔을 벌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겠다.

9 데만아,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Review

Last Sunday we began our study of the vision or prophecy of Obadiah. Let us start by recapping some of the important introductory comments I made last time. The book of Obadiah is the shortest book in the Old Testament at just 21 verses. It is also one of the most neglected. This is a great shame as it has much to teach us today. Let us turn first to the author of the book.

The author

The author we said was Obadiah. His name means “servant or worshipper of God.” Aside from his name we know nothing else about him. We must be content to think of him as a mystery man. What about the time, place and audience. Do we know much about these things?

Time, place and audience

It is very difficult to be definitive about when Obadiah received and wrote down his vision. Our only clue is that the prophecy talks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 am persuaded that Obadiah is referring to the Babylonian attacks that took place between 605 and 586 BC. Therefore I think Obadiah had his vision somewhere around 586 BC. Since he was writing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n Judah it seems likely he was living and operating within this region. Let us turn now to consider the book as a literary source.

About the book

Obadiah is included in our bibles today as the 4th of the 12 minor prophets. Obadiah is in the genre of prophetic vision. It is recorded mostly in Hebrew poetry with a little prose included. It can be neatly divided into three parts.

1	Day of destruction	Judgement against Edom is prophesied	1-9
2	Day of shame	The reason for God's judgment is revealed	10-14
3	Day of the Lord	What will be the result of God's judgement is revealed	15-21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part one titled “Day of destruction.” In this section we will learn all about what terrible things the Lord has in store for Edom. Let us conclude our review by briefly talking about the important histor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book.

지난 일요일에 우리는 오바댜의 이상이나 예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중요한 서론 몇 가지를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21 절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살펴보자. 저자 우리가 말한 저자는 오바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느님의 종 또는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 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시간, 장소 및 청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시간, 장소 및 청중 오바댜가 언제 그의 환상을 받아 기록했는지에 대해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단서는 그 예언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바댜가 기원전 605 년에서 586 년 사이에 일어난 바빌론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바댜가 기원전 586 년경 어딘가에 그의 환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유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그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을 문학적 원천으로 간주하기 위해 돌아가 봅시다. 책 소개 오바댜는 오늘날 우리 성경에 12 명의 소선지서 중 4 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예언적 환상의 장르에 속한다. 그것은 약간의 산문을 포함하여 대부분 히브리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날”이라는 제목의 1 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돔을 위해 예비하신 무서운 일들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책을 둘러싼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historic background

The vision of Obadiah concerns the fate of the people of Edom. The inhabitants of Edom were the descendants of Esau. They were not very friendly or hospitable to the people of Israel, the descendants of Jacob. Despite the familial connection the two nations were always at odds. God had forbidden the Israelites from hating their Edomite brothers but the people of Edom were always aggressive towards God's people. When the Babylonians attacked and destroyed Jerusalem we might have expected that Edom would rally to help them. Often even warring neighbours will help one another in times of national crisis. Instead Edom not only rejoiced in Judah's demise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her downfall. God could not stand by and let this act go unpunished. All of the surrounding nations would rise against this proud and haughty nation. Edom would fall but God's chosen people would eventually prosper because God is on their side.

Today we will look at verses 2 to 9. Let us begin at verses 2 and 3.

오바다의 환상은 에돔 백성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에돔 주민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지 친절하지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항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에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파괴했을 때 우리는 에돔이 그들을 돕기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전쟁을 치르는 이웃들도 국가 위기의 시기에 서로 도울 것입니다. 오히려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에돔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 절에서 9 절을 볼 것입니다. 2 절과 3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Verses 2 and 3

“Behold,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shall be greatly despised.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dwell in the clefts of the rock, Whose habitation is high; *You* who say in your heart, ‘Who will bring me down to the ground?’”

When I was a child one of my favourite movie heroes was Indiana Jones. He was just a great movie character; smart, funny, handsome and he got to whip people and kiss beautiful girls. In 1989 the third Indiana Jones movie was released. It was called the “Last Crusade” and starred Harrison Ford and Sean Connery. It was a huge Hollywood blockbuster. You might be wondering what this has to do with the book of Obadiah. Well it's significance for us today is because of one of its filming locations. Part of the movie was filmed in Petra in modern day Jordan. The spectacular sandstone carvings made for a wonderful backdrop in the movie. What you might not know is that Petra used to have another name. It used to be known as Sela and it was the strong fortress headquarters of the Edomites. I should probably point out that the amazing sandstone carvings that we see today were not the work of the Edomites. They were actually carved by the Arabian Nabateans who drove the Edomites out of the land.

The Edomites had made the high rocky mountains their home. The narrow mountain gorges and steep cliffs gave the Edomites a great sense of security and pride. They believed that no human army could conquer their kingdom. How very wrong they were. God's grace extends not just to

individuals but also to nations. When God removes that grace then even the mightiest nations can, and do fall.

In verse two we see God's judgement being passed against Edom. Whatever power, influence or prestige they had is about to be removed. They are literally about to be cut down to size. Soon the surrounding nations will look at them and consider them small and insignificant. This meant they would be seen as vulnerable. In the ancient world nations frequently attacked and tried to conquer their weaker neighbours. Naturally when you are looking around for a country to plunder you would look for the one with the weakest army and fortifications. Not only will Edom be made small in terms of size and influence but they will be greatly despised by their neighbours.

For a proud and arrogant people this would have been most galling. The principal problem for the Edomites was pride. God hates the sin of pride because pride makes us think too much about ourselves and our own accomplishments and pushes us away from God. Simply put pride makes us believe things about ourselves and our situation which are not true. This was certainly the case for the people of Edom. Safe up in their rocky mountain fortresses they thought they were untouchable. Therefore they relied upon themselves and felt that they had no need for an almighty God.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영웅 중 하나는 인디애나 존스였습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영화 캐릭터였습니다. 똑똑하고 재미있고 잘생겼고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1989년 세 번째 인디애나 존스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성전"이라고 불리며 해리슨 포드와 숀 코너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였다. 이것이 오바다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촬영 장소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일부는 현대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멋진 배경을 위해 만들어진 장엄한 사암 조각.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은 Petra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셀라로 알려졌으며 에돔 사람들의 견고한 요새 본부였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놀라운 사암 조각이 에돔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에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낸 아라비아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높은 바위 산을 자기 집으로 삼았습니다. 좁은 산골짜기와 가파른 절벽은 에돔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 군대도 그들의 왕국을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거하실 때 가장 강한 나라들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영향력 또는 명성이 무엇이든 간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크기가 줄어들려고 합니다. 머지 않아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보고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국가들은 종종 약한 이웃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약탈할 나라를 찾을 때 군대와 요새가 가장 약한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에돔은 크기와 영향력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크게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소름끼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주된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성취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교만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확실히 에돔 사람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위가 많은 산 요새에서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

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Verse 4

Though you ascend *as high as the eagle*, And though you set your nest among the stars,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says the LORD.

Eagles are awesome and fearsome birds of prey. They are very comfortable flying at heights ranging from 10-20,000 feet (3000 – 6000 metres). As they fly they are peering down using their amazing eyesight to search out prey. At this great height they have no natural enemies and must feel themselves to be invincible. However one thing they do not do is look up. This I think is Obadiah's point here. The Edomites in their high mountain cities (their nests) considered themselves so superior to everyone else that they forgot to look to God.

It is often the case that people who are materially blessed rely upon themselves and their resources and think they do not need God. However the Edomites were soon to find out that their humanly impregnable fortresses would prove no match to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독수리는 굉장하고 무서운 맹금류입니다. 10-20,000 피트(3000-6000 미터) 높이에서 비행하는 것이 매우 편안합니다. 그들이 날 때 그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놀라운 시력을 사용하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높이에서 그들은 천적이 없으며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하지 않는 한 가지는 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간 도시(그들의 등지)에 있는 에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Verse 5

“If thieves had come to you, If robbers by night— Oh, how you will be cut off!— Would they not have stolen till they had enough? If grape-gatherers had come to you, Would they not have left *some gleanings*?

Verse 5 tells us just how severe the judgement against Edom will be. They are not destined to just lose a little or a portion of what they own. They are about to lose it all. I hope that you have never had the traumatic experience of being burgled. Thieves are usually very particular about what they take. They want to be in and out of the property they are robbing as quickly as possible. Therefore they seek out high value items such as money, jewellery, electrical goods or valuable pieces of art. They are unable to take everything. They stop, and leave when they have what they wa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Edomites the robbers will take everything. Not just all their material possessions but even their land.

The second part of the verse talks about agriculture. Edom was known for its many vineyards. At harvest time the vineyard owners would hire pickers to come and harvest the grapes. You may remember that God in His mercy made provision for the poor when it came to harvest time. When grapes were picked God commanded that some were to be left on the vine for the poor and needy (Leviticus 19:10). Even though Edom was not following Israelite laws it was still common ancient practice to leave some fruit on the trees. Even pagans care a little about the underprivileged in their societies. However the point Obadiah is again making here is that the thieves who come to Edom will take everything. No fruit be be left for the poor and needy. Edom will be left with nothing to live on.

5 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의 일부 또는 일부를 잃을 운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강도를 당하는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도둑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취하는 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이 약탈하고 있는 재산을 드나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돈, 보석, 전기 제품 또는 귀중한 예술품과 같은 고가의 품목을 찾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떠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의 경우에는 강도들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물질적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까지도.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농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많은 포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수확할 때 포도원 주인은 수확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따실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포도나무에 남겨 두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9:10). 에돔은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나무에 열매를 남기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인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이교도들조차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약간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바다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에돔에 오는 도둑들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남은 열매는 없습니다. 에돔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Verse 6

“Oh, how Esau shall be searched out! *How* his hidden treasures shall be sought after!

Here we note that Edom is referred to by the name Esau. As we said last time the Edomites traced their ancestry back to Jacob's brother Esau. Apparently because Edom was such a strong and secure place it was a popular destination to leave or store money or treasure. It served if you like as an ancient bank. The First Bank of Edom. The money or treasure that people left would be hidden in rocky caves or crevices which were thought to be secure. However the plunderers who come will seek out and take this treasure.

여기서 우리는 에돔이 에서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음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야곱의 형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돔은 견고하고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보물을 남기거나 저장하는 인기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은행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에돔 은행. 사람들이 남긴 돈이나 보물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바위 동굴이나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탈자들이 찾아와서 이 보물을 빼앗을 것입니다.

Verse 7

All the men in your confederacy Shall force you to the border; The men at peace with you Shall deceive you *and* prevail against you. *Those who eat your bread shall lay a trap for you. No one is aware of it.*

In the ancient world nations would often sign covenants with one another. Such contracts were sometimes made between nations that were of equal size and strength. But they were also made between nations of differing size and strength. We can think of these covenants as agreements to act or behave in a certain way. Most obviously both parties would agree not to attack one another and to respect the border between them.

Covenants were a serious business in the ancient world and it was considered despicable or

treacherous to break a covenant. If a covenant agreement was broken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to pay. In Edom's case she will be betrayed by those she had covenants with. Nations she considered her friends and allies will turn against her.

Nothing stings so much as being betrayed by a friend. But that is the fate of Edom. People that she shared a meal with and considered close allies were plotting her downfall.

고대 세계에서 국가들은 종종 서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때때로 같은 규모와 힘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크기와 힘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약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백하게 양 당사자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약은 심각한 사업이었고 성약을 깨는 것은 비열하거나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약 합의가 깨졌다면 치러야 할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에돔의 경우에는 그녀가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입니다. 그녀가 친구와 동맹국으로 여겼던 나라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돔의 운명입니다.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동료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녀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Verse 8 and 9

8 “Will I not in that day,” says the LORD, “Even destroy the wise *men* from Edom, And understanding from the mountains of Esau?”

9 Then your mighty men, O Teman, shall be dismayed, To the end that everyone from the mountains of Esau May be cut off by slaughter.

Edom had a reputation for wise men. It was yet another excuse for their pride. You may remember one of Job's helpful and wise friends was a man from Teman called Eliphaz (Job 42:7-9). The reason that many wise men came from Edom was partly due to its geographic location. The kings highway ran from north to south through Edom. This meant that the latest news or ideas came quickly into Edom via trade caravans or travelling people. In the ancient world just like today information gives you power and influence. Wise men are also a good source for solutions to problems. When difficult or challenging situations arise we still look to wise people for their help. However God's destruction would be so complete that even it's wise men would be unable to do anything about it.

Finally Edom's mighty men, which might refer to either brave warriors or wise men will be dismayed. I think the word dismayed is a little weak and misleading here. The original Hebrew describes a sense of being broken down, or terrified by violence. I think that better captures the mood here. Edom's fighting men will be broken down by violence and slaughtered. When a nation has no soldiers to defend it, it has no future. In South Korea our security is maintained by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military. When its mighty men were gone Edom had no security. Soon it's enemies would capture and control it. This was the terrible fate awaiting Edom.

에돔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또 다른 핑계였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지혜로운 친구 중 한 사람이 데만 출신의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욥 42:7-9). 많은 박사들이 에돔에서 온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을 가로질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것은 무역 대상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최신 뉴스나 아이디어가 에돔에 빠르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대 세계에서 정보는 힘과 영향력을 줍니다. 현자는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좋은 원천입니다. 어렵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여전히 현명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멸망은 너무도 완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용감한 전사나 현자를 가리킬 수 있는 에돔의 용사들이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나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약간 약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폭력에 의해 무너지거나 겁에 질린 느낌을 묘사합니다. 여기가 분위기를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에돔의 용사들은 강포에 패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국가를 방어할 군인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안보는 용감한 군인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 용사들이 갔을 때 에돔에는 안전이 없었습니다. 곧 적들이 점령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운명이었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things for us to think about from today's passage.

1 Don't let your prideful hearts deceive you

The greatest sin of the Edomites was their sinful deceiving hearts. They genuinely believed they had no need for God. That is the reality of pride and why it is so deadly. C.S Lewis wrote that "Pride is 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The Edomites were of course not the first and certainly not the last to be carried away by the sin of prid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have witness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pride. It was pride that led to Satan being cast down from heaven. It is pride that has kept many from repenting and turning to Christ. Many people are just like the Edomites. They feel so safe and secure that they really believe they do not need God.

But even Christians are not immune to pride and its effects. How easy it is for us to start believing our own hype. To think how smart and wise we are and that we have nothing new to learn. To start believing that the things we have received are due to our own brilliance or hard work. To look down upon others who are not at our level or standard.

To think that people ought to listen only to what we have to say. God hates a proud and haughty spirit. What He loves is the humble and contrite. Let us then take the opportunity today to identify pride in our lives and confess it to the Lord knowing He is merciful in forgiving us.

2 Faith in the wrong things

The Edomites had placed their faith and hope in the wrong things. They believed their geographic location in the high mountains made them safe. They also believed that their wise men and military strength would get them through any difficulties. God tells them in today's passage that these things would not save them. When our reliance rests on men or the ideas of men we are always on unsteady foundations. This is because it is God not men that ultimately decides what happens.

What about us? What things are we putting our faith in? Our special skills, our education, our money, our physical or mental prowess. We would be wise to remember that all we have in any sphere of our existence is due to God's grace. This is why we are to place our faith in Him above all other things. Our own strength will one day fail or let us down. But God's strength will never fail, and He will never let us down. Let us put our complete faith in Him.

생각해야 할 것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교만한 마음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에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속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현실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완전한 반신적 마음의 상태”라고 썼습니다. 물론 에돔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죄에 휩싸인 최초의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교만의 파괴적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은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정말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 교만과 그 영향에 대해 면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과대 광고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며 배울 것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자신의 탁월함이나 노력으로 믿게 하는 것. 우리 수준이나 표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기회를 통해 우리 삶의 교만을 식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심을 알기에 그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2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

에돔 사람들은 그릇된 일에 믿음과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있는 지리적 위치가 그들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현인과 군사력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존할 때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 소개? 우리는 어떤 것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특별한 기술, 교육, 돈,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량.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은 언젠가 실패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읍시다.